

행복한 장수교육 실현 나선다

장수교육지원청, 교장·교감 협의회·연수 열고 교육정책 공유·역량 강화 도모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곤)은 3일 '2025년 하반기 교(원)장·교(원)감 협의회 및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관내 유·초·중등학교 교(원)장·교(원)감 및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행복한 장수교육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학교 관리자의 리더십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10대 핵심정책 실현을 지역 현장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했다. 장수교육지원청은 도 교육청의 핵심정책을 기반으로,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 △학교자치와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환경 조성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행사는 △2025년 하반기 장수교육계획 안내 및 협의 △각과 주요 전달사항 안내 △학교 현안 공유 △학교폭력 예방 및 갈등 관리(학교자치) 역량 강화 연수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우)쿠버실라테이션그룹 구기국 대표이사가 강사로 나서,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갈등 관리와



장수교육지원청은 3일 '2025년 하반기 교(원)장·교(원)감 협의회 및 연수'를 개최했다.

학교자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추영곤 교육장은 "교(원)장과 교(원)감의 교육 현장의 핵심 리더로서 정책을 이해하고 협력할 때 학생들의 성장이 더욱 탄탄해진다"며, "이번 협의회와 연수가 행복한 장수교육을 구현하고, 나아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10대 핵심정책 실현에 기여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재남 장수초등학교 교장은 "이번 협의회는 단순히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가 아니라, 미래 장수교육이

나아갈 길을 함께 설계하는 과정이었다"며, "학교 관리자들이 협력할 때 학생들의 성장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행복한 배움, 함께하는 성장'이라는 장수교육의 가치가 이번 연수를 통해 더욱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수교육지원청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하반기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유를 강화하고, 학교 현장과 관리자 간의 소통을 바탕으로 행복한 교육공동체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농산물 무료 잔류농약 검사 지원

장수군, 고성능 분석 장비 확대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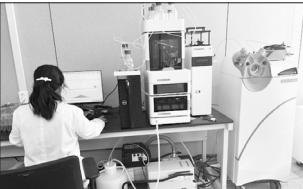
장수군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고성능 잔류농약 분석 장비를 확대 구축하고,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무료 잔류농약 검사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믿음을 주는 동시에, 그 동안 검사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던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장수군 농업기술센터에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LC-MS/MS),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GC-MS/MS) 등 첨단 장비 5대가 구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성분 463종에 대한 정밀 검사가 가능하다.

특히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대응하기 위해 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 분석을 적극 권장하며, 국내 생산·유통 농산물에 등록된 농약은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하고 그 외 농약은 0.01ppm 이하로 제한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장수군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약 안전 사용 교육과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현장 컨설팅 등 농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잔류농약 검사를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은 분석 대상(농산물, 토양 등) 1kg을 채취해 기술보급과 또는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제출하면 되며, 분석 결과는 7일 이내에 SMS와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실시

무주군이 지방보조금 관리·운영 역량 강화에 나섰다. 3일 무주군민의 집에서 실시된 교육에는 지방보조금 담당 공무원과 민간보조사업자 1백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은 2024년부터 전국 지자체에 전면 개통된 '보탬' 시스템의 활용

용도를 높이고 사용자들의 업무 역량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조한철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강사는 공공무원 대상 1차시 교육에서 △보탬 개요, △지방보조금 확정 통보 및 집행 등 행정 실무에 초점을 맞춘 내용들을 강의해 호응을 얻었다.

2차시 보조사업자 대상 교육에서는 △보탬 금융정보관리, △지방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내용들을 강의하며 지방보조금 실무 이해를 도왔다.

무주군은 지난 8월 25일에도 국고보조사업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나라도움) 전산실습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 멜론 농가 방문

재배 농가 격려·현장 점검·애로사항 청취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 2일 성수면 멜론 재배 현장을 방문해 생육상태를 확인하고 농가의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운·성수면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멜론을 전략적 대체 작목으로 선택했으며 공선출하회 회원 27농가 중심으로 약 7ha 면적에 재배하고 있다.

진안고원 멜론은 큰 일조차, 고랭지 기후 등 최적의 조건에서 생산해 육질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어 주소득 작물로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진안군은 2024~2025까지 2년간 멜론 실증단지 조성사업으로 멜론 유인물, 종묘 등에 약 3억원을 투입해 고품질 멜론 생산을 위한 시범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또한 멜론 품목에 대한 농업인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품목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멜론 재배농가 역량을 강화해 멜론 생산 매출액 7억을 목표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에 일조했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군 특화작목인 멜론을 육성하기 위해 농업인과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지원 정책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 향상시키는 '돈버는 농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향로산자연휴양림서 '영화소풍' 열린다

무주의 숲에서 다양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산림문화행사 열린다.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무주군 향로산자연휴양림에서 산림문화행사 '숲속으로 영화소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프로그램은 △19일 밴드 뮤즈 그레이의 음악 만들기 공연과 영화 '어네스트와 셀레스틴: 멜로디 소동(터빙)'가 상영 △20일 서커스 예술가 합서울과 숲속 문화공연단 로로의 무대와 영화 '왕카(더빙)'가 상영된다.

아울러 숲 놀이터, 자연물 공예, 현대 산림문화 100선 전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날리는 책 놀이터'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특히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소지자 중 초·중·고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족은



9월 2일부터 7일까지 객실을 우선 예약할 수 있으며, 숙박·식사·모노레일 체험과 다양한 산림문화 프로그램을 함께 즐길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고원길 감성야(夜)행 달빛걷기 6일 개최

진안군은 오는 6일 시나브로 치유길 감성야(夜)행 '달빛걷기'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진안군이 주최하고 진안고원길이 주관한다.

'달빛걷기' 프로그램은 6일 오후 6시 30분 진안중앙초등학교에서 출발해 진안천을 따라 생태습지원까지 이어지는 4km 구간에서 진행된다. 마이산의 전경이 펼쳐진 고원의 야경 속을 걸으며 잊지 못할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코

스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함께 어울려 걷는 가족 친화형 행사로 마련됐다.

또한, 걷기 후에는 재즈 공연과 지역 먹거리 나눔 이벤트 등 감성을 더하는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이어져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전망이다.

참가 신청은 행사 당일 오후 6시부터 현장에서 받으며, 완주 후에는 출발지인 진안중앙초등학교까지 셔틀버스가 운영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군일자리센터 &농(앤농)과 업무협약

진안군일자리센터(센터장 최영규)는 지난 2일 저녁 진안군일자리센터에서 청년 농업인 CEO들의 모임인 &농(앤농, 대표 김인호)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농(앤농)은 진안군 각 읍·면 단위에서 다양한 종류의 농업에 종사하는 17명의 청년들로 구성, 농업에 대한 정보 교류와 친목 도모를 통해 진안군 정착에 협력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임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 일자리 활성화와 도시의 유·유입인구 및 예비 귀농·귀촌인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 일자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협력에 위해 진행됐다.

양 기관은 △청년 농업인을 위한 농업 관련 일자리 발굴 및 매칭 △청년 농업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 △청년 구직자에게 농업 관련 일자리 정보 제공 △청년 농업인들에게 취·창업상담 및 경력개발 지원 △농업 분야에 적합한 일자리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청년 농업인들과 지역 농업 기관 간의 협력 및 정보 공유 △일자리 양기관의 실무협약에 따른 합의 사항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소방서, '9월 독성 강한 뱀 물림 사고 주의하세요'

장수소방서(서장 한동규)가 가을의 시작인 9월 초를 맞아 뱀 물림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커지면서 뱀이 체온 조절을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기이므로, 농작업이나 등산 등 야외 활동 시 특히 조심해야 한다.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으로는 △논밭이나 풀숲에서는 긴 바지, 장화, 장갑 등을 반드시 착용, △풀숲이나 농수로 주변에 들어갈 때 주변 확인, △야간 활동 시 불빛으로 길 비추고, 막대로 길 두드리기 등이다.

뱀물림 사고 발생 시 올바른 응급처치법은 △즉시 물린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119에 신고 △물린 부분 액세서리 제거 및 물린 부위 위 부분에 압박패드 대고 붕대로 감기 △물린 부위 입으로 빨아내지 않고 안정 취하기 등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